



앤 코튼

강철의 모계사회로부터 온 편지

지구의 상황에 환멸을 느낀 게릴라 요원이 화성으로부터 지구로 다시 돌아올까 고민 중인 옛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한다. 이 편지는 당연하게도 실존하는 퀴어 페미니즘의 구조적 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룬다.

화성에 있는 내 친구에게,

네가 가까이 있었다면 좋겠어,
하지만 여기에 있기를 바랄 수는 없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그곳,
네오갈라리스 벽으로 부스가 서 있던 작별인사용 카페에서 만나고 싶어.
지질판 조작 전쟁의 첫 번째 시험장이었던 거긴 이제 폐허가 된 걸 사진으로
봤어. 높은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갈라리스를 녹여서
살아남았다는 도시전설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는 없을 거 같아.
내가 만든 수경 재배 소시지 소식을 들어서 반가웠고,
스치듯 만났던 너의 동료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슬퍼.
이제 너에게 대답을 할게. 돌아오길 원하고 그럴 돈을 마련했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든 널 맞이해서 다리를 찾을 수 있게 도울게. 내가 사는 집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너도 이 흐름에 함께해도 좋아.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게 맞는 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곳에서 엘리트에
속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프로젝트는 주기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진행되고, 나는 거기 대처할 훈련을 받는다는 말이야. 나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넌 내가 내 수소 자전거에서 내리게 할 수 없어. 만약 원한다면 내가
사라졌을 때 내 의무이자 특권이 통째로 전달될 사람들의 목록에 당신을
올려줄 수 있을거야. 관심이 있다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가 들은 소문을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오는 데
치러야 하는 대가 정도면 우주에서 위치를 바꾸는 대신 다른 걸 바꾸는 데 투자
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아. 여기는 바뀌도 될 게 너무 많아서, 여기 오려고 토큰
을 써버린 걸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일단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 줄게.

아이들은 이전의 “선진국”에서 수가 더 작았어. 이건 전 세계에 좋은 일이긴 해,
하지만 물론 성장에 기반한 경제는 적응을 해야만 했고, 스스로 변화하거나



이민 정책을 바꾸고 교육비 지출을 바꾸기보다 여성을 압박하는 정당이 훨씬 더 많았지. 일을 줄이라고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필요를 만들어 낸 그 기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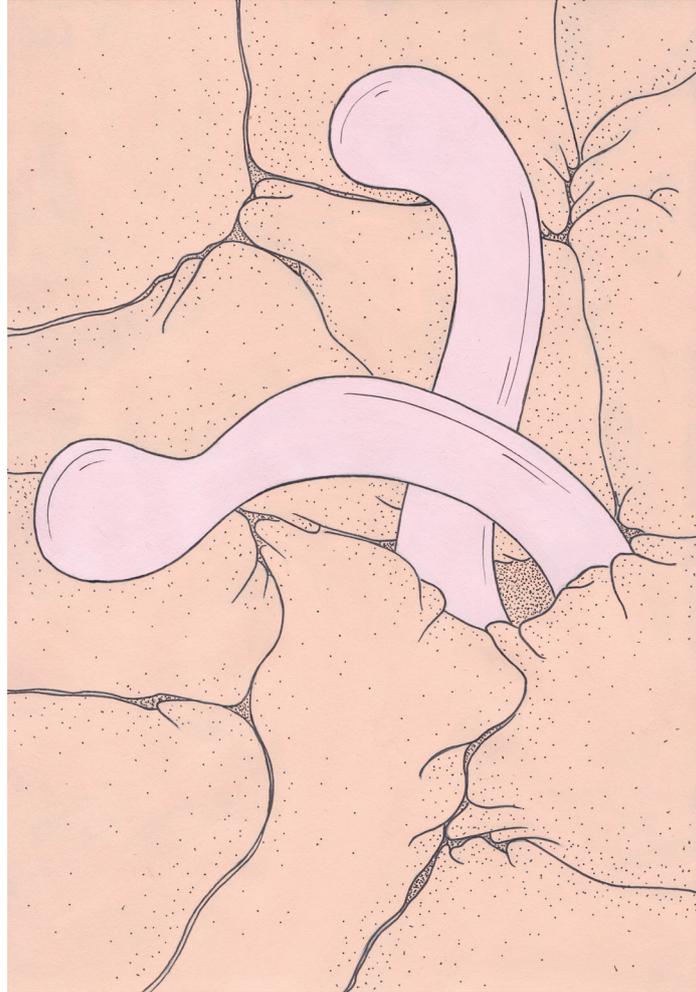
아직도 TV가 존재한다는 게 믿어져? 기묘한 의식을 치르면서 운세를 점치는데 쓰이거든. 사람들은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라우터에는 항상 음식에서 나온 액체가 떨어져. 화면이 켜지면 신의 계시로 해석되지. 거기가 바로 사회의 밑바닥이야. 꼭대기 층에선 보수적이고 게으른 사상가들이 종교적 유일신 집단과 연합을 맺고 신화를 퍼트려. 풀뿌리 퀴어 페미니스트 집단은 진보적 사고의 매개체가 되었어. 우리는 존중, 평등한 기회,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 하지만 우리는 교육이 억압의 형태이고, 교육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타고난 천재적 재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생식을 하던 세대의 산물인 어른 아이 같은 모습이었어. 하지만 *이탈자 (Überläuferinnie)*가 엄청나게 많았지. 퀴어 무리가 늘어났고.

교육자 노조는 민주주의 붕괴 직전에 정당을 결성했지만, 안타깝게도 세계 이슬람과 연합한 급진 환경주의자들에 맞서는 캠페인을 벌이는데 그치고 말았어. 퀴어 페미니스트들의 교육에 대한 옹호는 유럽식 계몽주의와 관련되었는데, 이는 식민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발된 신화로 여겨지는 것이었어. 투명성, 지식에 대한 접근성, 회의주의, 급진적 평등, 몸에 대한 주권, 타인의 몸에 대한 주권 존중과 같이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가치는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지. 나도 여기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우파들이 여기에 올라타 신화를 퍼트리기 시작했어. 마치 자기들이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든 활용해먹듯이 말이야. 시합은 서류상의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잖아. 어찌됐든 난자를 가르치는 여학교에선 문무를 갖춘 사람들을 비밀 엘리트로 길러내거든.

반면에 우리는 성공적으로 퇴행을 해서 요리할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강력한 수단이었던 사회 생활의 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건 우리가 소년아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지. 이런 행동은 주로 남성 인구가 많은 이민자 집단에서 생물학적인 성별 불균형과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서 생겨난 것 같아.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의존적인 지위 탓에 종종 극도로 여성 혐오적인 사고방식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항상 믿을 만한 건 아니야. 여기서 좋은 점은 서로에 대해서 성적인 매력이 없을 때 진정으로 외교적인 관계가 뒤따른다는 거지. 나쁜 점은 거짓말, 그리고 수용과 폭력과 서로에 대한 의존의 조합이랄까.



계층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담론은 이런 격차가 경제적인 격차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격차가 되게 만드는 데 일조했어. 유일신 종교를 믿는 하층민들의 신랄하면서 반복적인 말투를 다들 어떻게든 피하려 했고, 특권이 없는 사람들을 마치 우울하지만 거기에 앉은 사람들에게겐 기운을 주는 소파나 다름없는 군용 탱크 취급한다는 걸 청각적으로 드러내려 했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음악, 미묘한 뉘앙스, 섬세한 동작이 들리고, 이런 것들이 귀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건 마치 울분(bile)의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느껴져. 성경(bible). 중얼거리는 소리(babble).



하지만 만약 일신교 계급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그들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해야 했어. “BMW”를 스무 가지 억양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을 “사랑해”라는 뜻이 되게 만들 수 있어야 했지. 성형 수술을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얼굴을 메이크업으로 꾸밀 수 있어야 하고, 불편을 겪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농담하는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 다시 말해, 너의 시간은 머리카락처럼 완전하고 무한해야 한다는 거야. 너의 시간이 처음부터 헛된 삶이라고, 너의 자유가 삶을 다시 소모하는 데 있다는 걸 느껴야만 하지. 야망은 비밀스럽게 품어야 해. 끝을 볼 때까지는 방송으로 알리지 않아. 그렇게 해서 নিজ 학교에 도착하게 되지.



프롤레트쿨트는 마지막으로 남긴 리소그래프에서 이런 미학을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재미있는 시도를 했어. 그들은 상류층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 교과서를 썼지. 여기에 첨부해서 보내.

개인적으로는 피임 부대의 일원으로 활동*해왔어. 세뇌당한 여성들이 그들을 둘러싼 전쟁-아기-양육이라는 유일신교의 미신을 극복하고 자유를 누리도록 설득하는 비밀 조직이야. 우리는 품행이 방정한 숙녀만 입장할 수 있는 여성 전용 공간을 만들어 그들이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힙하게 보이게 만들어 주려 애썼어. 하지만 거기에 벌어진 틈새, 워크, 녹음 스튜디오를 교묘하게 숨겨냈고, 피임법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법을 함께 숨겨냈어. 구리 코일은 지하실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지만, 소녀들이 돌봄 노동과 재생산이 자신에게 가치를 준다고 느끼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야 해. 프로젝트들은 우정이 쌓여가면서 독립적으로 변해. 우리 기준에서는 부패했지만 여성 종교인 센터로 변창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지. 가장 중요한 건 피임약을 몰래 들여오는 일이야. 코카인 밀수 조직은 최악이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협조나 최소한의 공모가 없었다면 자율적으로 비밀 작전을 할 수 없었을테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도와. 대부분의 딜러들은 건수를 올릴 때마다 느끼는 허탈감으로 우울해하는 것 같아. 그들은 쓸모없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양산하지. 그러니 우리를 돕는 건 그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는 일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용품은 소녀들이 올바른 길이라고 배운 것을 벗어나게 유혹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기도 했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또 다른 재미로 뛰어들도록 말이지.

우리의 목표는 전 지구적인 생식 파업으로 향하는 거야. 지렛대를 쥐고 있는 놈들은 인간이 인적 자원이고 하층민은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과 식량 제공을 하려고 번식한다는 개념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물려받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여성이 재생산을 할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 그들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자신이 보물과 같다고 느끼지. 그 방식이 상류층은 이해하지 못하는 보물이고. 그러나 산업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세계화된 세상을 이해하려면 교육이 필수적이야. 아이들은 나름대로 스스로를 가르쳐. 고철을 줍는 고물상과 도시의 풍경을 꿈꾸는 키클러 갱단의 신화 속에서지.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은 완고하게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을 노예로 판 돈으로 자금이 조성된다는 사실에 눈을 감고 있어.

우리는 조직 차원에서 ‘마더스’라는 단체와 모호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들이 생각을 멈추면, 우리는 일을 이어나가. 가장 최근에 어머니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일으킨 쿠데타는 비밀 암호로 전파되는 여성용 경전이야. 우리는 성경, 코란, 토라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설명과 농담집도 인쇄했어. 그 안에는 설령 남자와 친구라고 해도 그 내용을 알려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들어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데 내가 찬성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믿어. 종교 서적의 텍스트는 처음엔 원본과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곧 무척 다른 경로로 접어들게 되지. 위협적이지 않을 만큼 터무니없고 장황한 텍스트는 그 자체가 메시지이고, 유혹의 기술을 구현해. 그 메시지는 이거야. 너는 이미 읽었을 것이다.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코란을 전할 때 쓴 “읽으라”는 명령과 달리, 이 말은 여러 손가락으로 모든 방향을 가리키는 셈이야. 너는 항상 이미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 모든 걸 차단하는 일은 그만두라는 것. 세상이 너의 동맹이라면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폭력이 존재하지. 불법적인 폭력. 합의되지 않은 폭력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과 감금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길 바라는 의식을 정부에 통과시켰어. 법 집행관들이 정기적으로 모든 주거지를 방문해서 모든 사람을 거리로 내보내는 거야. 이걸 지진 대비 훈련을 가장해서 이뤄질 거야. 집행관들은 이 일 외에 다른 임무나 과제가 없고, 따로 염탐할 거리도 없어.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보장하는 것이지.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낭독하고, 집이나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밖으로 나가도록 요청했어. 숨겨진 방이나 감금의 흔적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누군가에게 자유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으면 피난처 목록을 건네. 이 목록은 공공 장소와 건물 입구마다 붙어 있고, 우리는 이 목록을 배포해.

시를 써서 갓 엄마가 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그들이 해낸 일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동시에 이 세상에는 아이들의 얼굴과 마음과 존재만이 아니라 그들만의 얼굴, 마음,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야. 그리고 그들이 하나 뿐인 아기와 가족을 돌보느라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걸 떠올리도록 하지. 이건 그리움의 시, 존경과 슬픔의 시야. 시가 효과가 있는지, 역효과를 낼 지, 역효과를 낸 뒤 장기적인 영향을 발휘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우리는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시설에 뮤지션, 재생 목록, USB 메모리, 우리 단체의 회원들을 보내. 우리는 여성들이 다른 지원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치원 시설과 프로그램을 위해 로비를 벌였어.

그렇게 이 모든 일이 벌어졌지만, 알다시피 나는 ‘마더스’라는 조직의 역할을 정말 싫어하거든. 나는 한 번도 여자애들과 노는 걸 좋아했던 적이 없었고, 여자들의 계략에는 관심이 없어. 나는 사람들을 격리하는 게 싫어. 그건 위험한 것



같아. 빌어먹을 파벌들.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는데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도 재미가 없어. 우리는 메이크업을 통한 복귀가 일반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소녀들을 두려워하는 경향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걸 알아. 우리는 통제라는 이름으로, 통계의 힘을 무시한 채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뒀지. 남자아이들은 남근을 움직일 수 있고, 따라서 온갖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을 두려워해야 해. 나는 반발이 두렵고, 폭력이 고조되는 게 두려워. 이 모든 게 끔찍하리만치 취약하거든. 솔직히 내가 목표로 하는 건, 그건 절대 이뤄지지 않겠지만, 인간이 지금의 형태로 죽어 없어지는 거야. 인간이 이 모든 여성 혐오를 정확히 그것의 부정적인 형태로 지속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의 복종을 칭찬하는 것마냥 교묘한 방식으로 개같은 이유로 여성을 존경하니까 말이야.

휴, 정말 피곤하네.

구체적인 팁으로 마무리할게. 다른 은하계에서는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해. 파벌 체제는 국가 단위의 화폐에 대한 진지한 재정적 대안으로 자리잡았어. 상품 교환이라는 체제 C를 벗어나서 현지의 신적 존재를 포함하는 친숙한 연대의 체제인 A로 돌아가는 거야. 파벌에 모든 걸 바쳐야 하지만, 파벌은 아무런 제한 없이 도움을 줘. 마치 가족처럼 돌아가지. 미친 조직이지만, 그 무엇이든 가능한 합법적이야. 물론 네트워크가 넓은 파벌을 선택하거나, 현지에 머무르는 쪽에 선택을 걸어보기를 바라겠지.

일을 한다는 건 공동체에 속한다는 의미야. 공동체는 음식과 머물 곳을 주고, 아플 때는 돌봐주고, 나이가 들면 공평하게 죽음을 안겨줘. 공동체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게 마련이지. 큰 규모의 공동체에는 여전히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형식적인 시스템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우리를 갖가지 방식으로 혼란스럽게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타일을 공유하는 친숙한 무리를 더 좋아해.

하지만 말야, 자기야, 그건 새로운 게 아니야—

난 어찌면 너를, 만나서 껴안고 싶은 거야.

마음을 굳게 먹어줘!

마미타



저자 소개

앤 코튼은 독문학을 전공했고, 2007년부터 글쓰기와 번역, 그 주변부의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최근 『Die Anleitungen der Vorfahren(조상들의 지침)』(edition suhrkamp, 2023)을 발표했다.



편집: 잉고 니어만

편집: 로잔나 맥래프린

한국어 번역: 박재용

일러스트레이션: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한국어판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4, 앤 코튼, 에바 파브레가스 & 와일드 퍼블리싱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Institute Art Gender Nature) 소속 기관